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 “가해기업이 사용해보라” 절규

“대통령과 채동석 전 애경산업 대표, 최창원 SK케미칼 전 대표 등은 정부와 기업에 아무런 책임이 없는데 왜 사과한 것인가. 이유를 모르겠다. 가해기업 및 관계자들이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하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가해기업이 아닌 피해자와 국민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판결과 선택이 필요하다”

박해정 가습기살균제참사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송운학 개혁신당대안생행동 상임대표, 환경단체 글로벌에코넷 김선홍 상임회장과 가습기살균제 ‘가습기메이트’ 참사 피해자들은 14일 오전 11시 광화문 광장 세종대왕 동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처럼 밝혔다.

가습기메이트는 SK케미칼이 만들고 애경이 함께 팔았다. 이 제품을 썼다가 피해를 봤다고 신고한 이들은 800명이 넘고 12명이 숨졌다. 이에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 등 13명 등은 안전성 검증 없이 가습기 살균제를 만들어 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에 대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공소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며 12일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가습기 살균제 성분인 클로로메틸아미소티아졸리논(CMIT)-메틸아미소티아졸리논(MIT)이 폐질환이나 천식을 유발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재판부는 또 SK케미칼에 근무하면서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 제조·판매에 관여해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사 전직 직원 4명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PHMG 성분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한 혐의로 관계자들이 유죄를 선고받은 옥시에 이 물질들을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SK케미칼 관계자들이 업무과정에서 다소의 부주의가 있었다는 판대 경위 등에 비춰볼 때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사망과 상해라는 결과가 발생하는 데 본질적으로 기여했다고 보기는 어렵

“우리 몸이 증거... 뒤늦게 인과관계 따지나” 사법부·기업 규탄 SK케미칼 만들고 애경이 판 ‘가습기메이트’... 피해자만 800명 넘어 사법부 1심 재판서 무죄 판결... “공소사실 충분히 증명되지 않아”

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과 관련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등은 입 모아 “이런 몸이 우리의 증거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가해기업인 SK케미칼과 애경산업 대표 및 임원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를 규탄했다. 이들은 “재벌과 대형로펌이 야합한 결과 제심 판결이 내려진 것이라는 의혹을 떨쳐버릴 수 없다”며 “이들 바로잡지 못하면 우리나라 사법부가 죽게 될 것이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의 절규... “모든가 무죄인데 대통령·기업 대표들은 왜 사과했나”

이날 박해정 비상위원장은 “옥시의 가습기살균제 원료물질인 PHMG는 SK케미칼이 원료를 공급한 것으로서 SK케미칼이 현재 무죄 판결을 받은 원료물질인 CMIT, MIT 성분의 가습기살균제”며 “1994년 안전성 입증도 되지 않은 채 최초로 세상에 나오지 않았더라면 오늘날의 가습기살균제 대참사는 없었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1991년 제정된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의해 CMIT, MIT는 처음부터 정부가 책임을 지고 관리했어야 할 유해 화학물질이었다”며 “2003년~2004년에 도 환경부는 자체적으로도 마련한 시행령 규칙대로 안전성 시험을 이행하지 않았다. 2011년에도 가습기살균제 원재 기업인 SK케미칼의 원료물질 CMIT, MIT는 유해성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식으로 각 정부부처가 SK케미칼을 비호하고 면죄부를 줬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해기업과 정부의 공조 관계에서

지난 10년간 소업중심성 말단기관지 폐쇄 유행만을 폐질환으로 만들어 환경 카르텔로 묶인 집단에 의해 가해기업 구제법을 만들어왔다”며 “정부는 인과관계 입증을 위해 뒤늦게 실험을 하면 안 된다는 전문가들과 피해자들의 주장을 묵살하며 처음부터 잘못 설정한 뒤 실험의 결과로 무죄를 선고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019년 기준 6300명 피해자 중에 5400여명이 천식 질환을 앓고 있으므로 최초 피해자로부터 인과관계를 추정했다면 가해기업은 확실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밖에 없었다”면서도 “잘못된 실험방법임을 경고한 방법으로 역학조사를 해 무죄가 선고 될 수밖에 없게 인과관계를 만든 책임도 정부가 져야 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박 위원장은 또 “추가 연구가 꼭 나와야 한다는 재판부의 판결 내용 또한 거대 로펌을 끼고 있는 가해기업이 학연·지연 등이 의심스러운 유전무죄 판결이며 비양심에 바탕을 둔 천인공노할 기계적 판결이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가습기살균제 물질이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은 대한민국 전체 국민이 모두 알고 있고 무려 1609명이 사망한 사건이다”며 “정부도 기업도 무죄인데 대통령과 기업 대표들이 머리숙여 사과한 이유는 무엇이나. 무죄라면 사망한 1609명의 피해자는 가해자 없이 자연사를 했다는 것인가”고 비판하며 재판부가 정의와 진실을 밝혀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유명석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및 가족모임 대표는 “이윤추구에 눈이 먼 기업은 독성 유해물질을 흡입하게 하고 정부는 그



‘가습기메이트’ 참사 피해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부와 가해기업 등을 규탄했다. 사진은 기자회견 현장. 황정아기자

독성물질을 만들고 팔도록 허가해 수많은 사망자와 사상자를 만들었다”며 “참사의 해결과정에서 보여준 정부와 국회, 특조위, 재판부가 보여준 행태는 후진국가를 넘어선 미개한 국가 수준이다”고 한탄했다.

이어 “전신질환과 죽음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는 나라가 세상에 어디에 있느냐”며 “피해자의 몸이 증거인데 사람의 몸으로 역학조사를 하지 않고 뒤 실험을 통한 증상으로 사람에게 적용해서 1609명의 영령 앞에 인과관계가 없어서 무죄라는 게 말이 되느냐”고 분노했다.

유 대표는 “어머니께 효도한다고 사다가 정성들이며 틀어던린 가습기살균제로 어머니를 돌아가시게 한 죄책감에 지금도 무서워서 불을 끄고 살지 못한다”면서 “가해기업은 돈으로 거대 로펌 변호사를 사서 무죄판결을 받았고 피해자를 구제해야 할 정부와 특조위는 1000억원의 막대한 예산으로 인과관계 하나 밝히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울분을 토했다.

송운학 상임대표는 “원료를 공급받아 판매한 옥시는 무죄인데 원료를 공급한 SK케미칼은 무죄라니 어안이 병병하다”며 “판사는 상식에 반하는 판결을 내리면서 자기 자신도 계면짜였는지 ‘가습이 아프다’고 말했다고 한다. 희대의 계면이 자악어의 눈물이다”고 비판했다.

이어 “판결문을 검토하지 않아 성급한 주장일 수 있지만 상식적으로 폐질환을 유발하는 가습기살균제 원료와 전신질환을 야기하는 가습기살균제 원료는 서로 다른 구조와 성질을 갖고 있다고 알고 있다”며 “공통점은 흡입하거나 피부에 노출되지 않는다는 엄격한 조건 아래 살균제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 단 한 가지뿐이다. 피해자들이 그토록 요구했던 전신질환에 주목했다면 전혀 다른 판결을 내릴 수 있었을 것이다”고 주장했다.

김선홍 상임회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17년 가습기살균제참사 피해자들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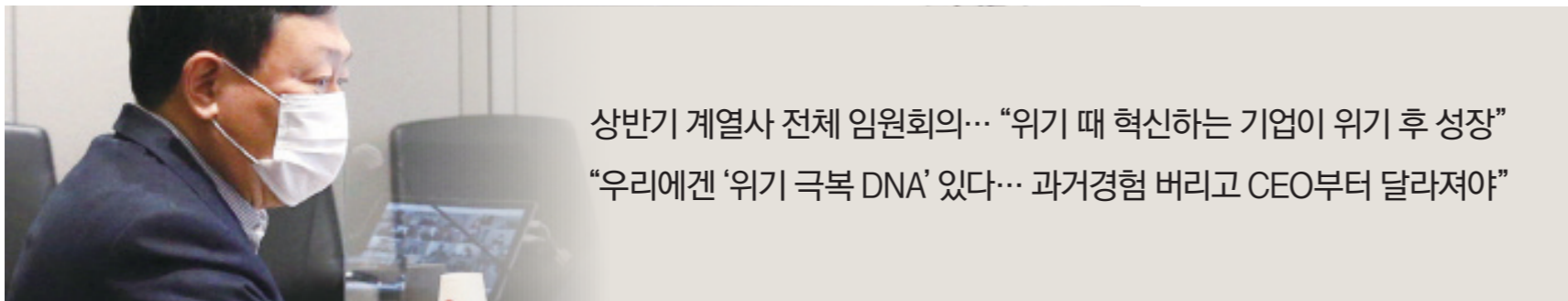
청와대에서 만나 ‘책임져야 할 기업이 있는 사고지만 정부도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할 수 있는 지원을 충실히 해나가겠다’고 사과했다”며 “또 2019년 가습기살균제 참사 청문회에서 최창원 전 대표와 채동석 전 대표는 청문회에 참석한 피해자들을 향해 고개를 숙이며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러나 지난해 연말 환경부가 진상규명이 다 됐다고 발표했고 정부는 사회적 참사 특조위 가습기 살균제 진상규명을 삭제했다”며 “이번에는 사법부마저 ‘무죄선고’로 가해기업에 면죄부를 줬다. 한국전쟁 이후 제일 큰 참사인 1609명이 사망한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가 없는 별 해괴망측한 판결이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젠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사회적 참사로 인정하고 정부가 배보상 후 가해기업에 구상권을 청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주현기자

‘변화’ 강조한 신동빈 “생존에만 급급해선 미래 없다”

(롯데그룹 회장)



상반기 계열사 전체 임원회의... “위기 때 혁신하는 기업이 위기 후 성장” “우리에게 ‘위기 극복 DNA’ 있다... 과거경험 버리고 CEO부터 달라져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사진)이 “위기 때 혁신하는 기업이 위기 후에 성장 폭이 크다”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생존에만 급급하거나 과거의 성공 체형에 집착하는 기업엔 미래도, 존재 의의도 없다”며 각 계열사를 향해 혁신적으로 변하지 못하는 회사는 과감한 포트폴리오 조정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동빈 회장은 지난 13일 상반기 계열사 전체 임원 회의의 VCM(Value Creation Meeting-주요 임원 회의)를 주재하고 약 30분 간 이같은 내용이 담긴 당부 메시지를 전달했다. 신 회장은 “각 사본질적인 경쟁력, 핵심 가치는 무엇이나”고 질문을 던진 뒤 “5년 후, 10년 후 회사의 모습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각 회사에 맞는 명확한 비전과 차별적 가치가 있어 야만 성공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신 회장을 비롯해 송용

탁·이동우 롯데지주 공동 대표와 유통·호텔·화학·식품 부문의 강희태·이봉철·김교현·이영구 BU(Business Unit)장, 계열사 대표 등 임원 1300여명이 참석했다.

사회적 거리 두기 상황을 고려해 화상 연결 방식으로 진행됐다. ‘Rethink-Restart :재도약을 위한 준비’라는 주제로 논의했다. 재도약을 위한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가 다각도에서 심도 있게 이뤄져야 한다는 위기감이 반영됐다는 평가다.

주요 내용으로는 올해 경제 전망 및 경영환경 분석, 그룹 대응 전략, 사업 포트폴리오 고도화 방안, CEO 역할 재정립 등이 다뤄졌다. 현재 방식에 기반한 개선안으로는 혁신의 폭에 한계가 있다는 절박함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신 회장은 “미래 관점에서 비전을 수립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 환경에 부합하는지 수시로 재점검해야 한다”며 지

속적인 투자와 함께 실행력을 높여달라고 주문했다. “각자 업에서 1위가 되기 위해 필요한 투자는 과감하게 진행해야 한다”며 “특히 디지털 혁신에 대응하기 위한 DT(Digital Transformation) 및 R&D 투자는 반드시 필요하고 브랜드 강화를 통해 차별적인 기업 가치를 창출해야 한다”고 했다.

또 “업계에서 가장 먼저 시작했음에도 부진한 사업군이 있는 이유는 전략이 아닌 실행의 문제였다고 생각한다”며 “투자가 결실을 보기 위해서는 전략에 맞는 실행이 필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CEO들이 고객·임직원·사회가 공감할 수 있는 비전과 전략을 세울 때 강력한 실행력이 발휘되고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고도 했다. 이와 함께 수평적 조직 문화 구축과 ESG(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 경영에 대한 집중도 필요

하다고 했다.

지난해 롯데는 코로나 사태 직격탄을 맞으면서 주력 부문인 유통과 화학이 모두 크게 휘청였다. 예년보다 이르게 연말 인사를 단행하고 임원수를 100여명 줄인 것도 롯데가 맞닥뜨린 위기감을 보여줬다. 신 회장은 신년사에서 “단순히 코로나 사태 이전 수준을 회복하겠다는 생각만으로 연기됐던 사업을 꺼내 반복해서는 성공할 수도 성장할 수도 없다”고 했다.

신 회장은 이어 “IMF, 리먼 사태 때도 롯데는 과감한 결단을 통해 의미 있는 성과를 냈다”며 “우리에게 ‘위기 극복 DNA’가 분명히 있다”고 격려했다. 그러면서 “성장에 걸림돌이 되는 과거의 성공 경험을 과감히 버리고 CEO부터 달라진 모습으로 사업 혁신을 추진해 달라. 저부터 롯데 변화의 선두에 서겠다”고 했다. 강주현기자

보폭 넓히는 대응제약

바이오헬스케어 위탁생산 진출

세포치료제 제조·개발·판매 ‘올인원 패키지’ 제공 시작



대응제약 본사. 스카이데일리DB

대응제약이 정부허가를 받아 첨단바이오헬스케어 위탁개발·생산(CDMO) 사업에 본격 진출한다. 대응제약은 식품·약품 안전처로부터 첨단바이오헬스케어 제조업 허가를 받았다고 14일 밝혔다.

첨단바이오헬스케어 제조업 허가는 첨단바이오헬스케어 관련사업을 하려는 기업들이 확보해야 할 첫 번째 조건으로 꼽힌다. ‘첨단제생의료 및 첨단바이오헬스케어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첨생법)’에 따르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고 식약처장의 허가를 받은 기업만 세포치료제·유전자치료제 등을 취급할 수 있도록 돼있다.

대응제약은 이번 허가를 기반으로 세포 치료제를 포함한 첨단바이오헬스케어 제조와 개발부터 품질시험·인허가 지원·보관 및 배송·판매까지를 아우르는 ‘올인원(All-in-one) 패키지’ 사업을 시작한다. 협력계약을 맺은 업체에게는 글로벌스탠다드에 맞춘 대응제약의 세포치료제 생산기공과 국내 최상위권의 제약영양·마케팅 역량 등이 제공될 예정이다.

대응제약은 이미 바이오헬스케어 분야에

서 선도적인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 국내 최초로 유전자조합 기술을 이용해 당노성 촉부배양치료제 ‘이지에프 외용액’을 개발했으며 자체개발 보툴리눔독소제 ‘제 나보타’에 대해 미국 식품의약품(FDA) 등 캐나다 연방보건국(Health Canada) 등 선진국 규제기관의 까다로운 실사를 거쳐 GMP 인증을 따낸 경험도 있다. 대응제약은 축적된 노하우를 첨단바이오헬스케어 제품 개발 및 생산에서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박종원 대응제약 세포치료센터장은 “대응제약은 바이오헬스케어의 FDA실사 및 허가경험을 보유한 회사이며 첨단바이오헬스케어 제품을 생산하는 세포치료센터는 대부분 석박사로 구성된 조직이다”며 “해외진출을 위해서든 국내시장 공략을 위해서든 대응제약과의 협력은 후회없는 선택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홍승의기자